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URC 2026 주요내용

URC 2026에서는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한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교통·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복구, 전쟁위험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 안보·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신규 펀드와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이 기존의 지원 중심 논의를 넘어 투자 중심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1 제5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요 및 주요 방향

□ Ukraine Recovery Conference 2026 개요

- 개최 기간 : 2026. 6. 25.(목) ~ 6. 26.(금)
- 개최 장소 : 폴란드 그단스크(Gdańsk)
- 공동 주최 : 폴란드 정부, 우크라이나 정부
- 주요 참석자 :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등
- 이번 URC 2026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됨. 이번 회의에서는 약 200건의 협약 체결과 1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투자·지원 패키지가 발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는 5,8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폴-우 간 역사 문제로 인해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참하였으나 양국 총리급 참석은 유지됨
- 기존 URC와 비교하여 민간투자와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재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특히 '안보·국방' 분야가 처음으로 핵심 의제로 포함되어 에너지·물류·인프라 복구와 방위산업 및 국가 복원력 강화가 재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URC 2026의 5대 핵심 의제

- 이번 URC에서는 기존 4개의 축 ① 비즈니스, ② 인간 ③ 지역 및 지방, ④ EU 통합에 공동 주최국 폴란드의 제안으로 **안보 및 국방이 다섯 번째 핵심의제로 신설**, 이는 전쟁 상황에서 안보가 재건과 투자,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경제·사회 중심 재건 논의를 넘어 안보와 재건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냄

① 비즈니스 차원(Business Dimension)

- 민간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재건
 - 국내·외 투자 및 PPP 활성화, 전쟁위험보험 등 금융지원 확대
 - EU 규제 정합성 강화 및 Bankable Project 중심 투자환경 조성
 - 제조업·가공산업 및 그린·순환경제 육성
 - 벤처투자·장기금융 확대와 전선지역 기업 지원

② 인적 차원(Human Dimension)

- 인적자본 회복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 교육·보건·재활·정신건강 체계 복구
 - 이재민·참전용사·청년 지원 및 노동시장 대응
 - 해외 디아스포라 참여 확대와 인구 회복 지원
 - 문화유산 보호 및 EU 사회·문화 연계 강화

③ 지역 및 지방 차원(Local & Regional Dimension)

- 지방정부 중심의 회복력 있는 지역 재건
 - 도시·농촌 인프라, 주거·에너지·교통 통합 재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정부 역량 강화
 - 우크라이나-국제 지방정부 협력 플랫폼 구축
 - 분권형·지역 맞춤형 재건 모델 확산

④ EU 통합 차원(EU Dimension)

- EU 가입을 위한 제도개혁과 경제통합 촉진
 - 사법·행정·법치·인권 등 가입 요건 이행
 - EU 단일시장 기준 정렬 및 경제통합 강화

- Ukraine Facility·Ukraine Plan 연계 지원
- 공공서비스 및 제도 안정성 제고

⑤ 안보·국방 차원(Security & Defense Dimension)

- 안보를 기반으로 한 재건과 방위산업 협력 강화(URC 2026 신규 의제)
 - 방공·드론·AI·이중용도 기술 및 방산 역량 강화
 -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보호와 군사기동성 제고
 - 지뢰 제거, 민방위·국가회복력 강화 및 허위정보 대응
 - EU·NATO 및 국제 방산협력·투자 확대

2 URC 2026 1일차 발표내용_6.25

□ 개최식 : "재건은 전후(戰後)가 아닌 현재 진행형 과제"

-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전쟁 종료 이후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국가 복구 프로젝트로 규정,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재건과 안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번 회의를 투자와 사업 발굴 중심의 국제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재건과 안보 및 방위를 통합 의제로 설정
- 에너지·물류·핵심 인프라를 최우선 복구 분야로 선정
- 정부 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회의 성격 전환
- 투자유치와 국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사업 발굴 추진

□ 우크라이나 정부 : "재건은 유럽 전체의 경쟁력 강화"

- 스비리덴코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단순한 지원 수혜국이 아닌 유럽의 안보·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고, 재건을 민간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이번 회의에서 160건 이상의 협약과 100억 유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안보·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제시

- 공공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재건 전략 전환 강조
- 에너지·교통·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
- 160건 이상의 협약 체결 및 1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투자·협력 사업 추진 목표 제시

□ 폴란드 정부 : 우크라이나 재건의 전략적 거점 역할 강조

-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한 인프라 복구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유럽의 안보를 함께 재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확대와 실질적인 재건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은 역사적 진실과 화해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폴란드가 재건의 핵심 물류·투자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국제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
-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유럽 안에 있으며 재건은 유럽 전체의 과제
- 폴란드는 재건의 핵심 파트너이자 물류·경제 허브 역할 수행
- 재건은 자유와 안보를 함께 지키는 일

□ EU : 900억 유로 규모 우크라이나 장기지원 프로그램 본격 착수

-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은 유럽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공동 투자라고 강조하며, 2026~2027년 총 9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지원 프로그램(Ukraine Support Loan)을 통해 재건과 국방을 지속 지원하고, 첫 번째 32억 유로 지원금 지급을 발표함
- 추가 60억 유로 규모의 드론 생산 지원금도 수일 내 집행 예정
- 독일·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및 EU가 공동 참여하는 220백만 유로 규모의 유럽-우크라이나 전략투자 지분펀드 출범(민간 투자 유치 및 전략산업 투자 촉진)
- EU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현재까지 20백억 유로 규모의 경제·재정·군사 지원을 제공, 지속적으로 EU 가입 절차를 지원할 계획

□ 유럽이사회(EC) : 재건과 EU 가입의 병행 추진

-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후 복구를 넘어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이는 EU 가입 과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정치적 지원을 지속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우크라이나 재건과 EU 가입 협상의 병행 추진
-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경제·사회 재건 지원
- EU의 장기적 재정·정치적 지원 지속
-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 원칙 재확인

□ 국제금융기구 :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확대 및 제도개혁 지원 강화

- 국제금융기구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과 민간 투자 촉진에 나서며, 재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병행 지원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세계은행은 제1차 성장 및 일자리 개발정책금융(DPO)을 통해 3,390 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협정을 우크라이나와 체결
- 유엔개발계획은 재건은 종전 이후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과제라며, 추가 자금보다 투자 가능한 사업(bankable projects) 발굴과 제도 개혁이 재건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
- 세계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엔,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5,8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부문 : 2026년 겨울 대비가 최우선

- 각국 정상과 EU 지도부는 에너지 인프라의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우크라이나 재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재건 과정에서 녹색 전환과 민간투자 확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각국 정상들은 동절기 이전 전력·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을 강조

- 국제금융기구 및 각국 정부는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관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제시
- 재건 과정은 EU 환경기준과 법·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한 녹색 회복 (Green Recovery) 방향으로 추진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구축을 병행할 방침임.

□ 민간기업 투자 확대

- URC 2026은 기존 재건회의와 달리 민간투자 확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Recovery Forum과 Business Fair를 통해 투자 상담, 사업 매칭, PPP사업 확대를 중점 추진함.
- Recovery Forum 운영
- Business Fair 개최
- 기업 간 투자 상담(B2B)
- 민간협력사업 확대
- 국제 투자자 매칭

2 URC 2026 2일차 발표내용_6.26

□ 2일차 회의 개요 : 재건 논의에서 투자 실행단계로 전환

- 2일차 회의에서는 전날 제시된 정치적 지지와 재정지원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참가국과 국제기구, 민간기업은 재건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투자 프로젝트 발굴, 금융조달 체계 구축,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회의 종료 시점 기준 약 200건의 협약·양해각서(MOU)·의향서(LOI)가 체결됨
- 회의 종료 기준 약 7,500명 참석(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포함)
- 약 70개국 정부 및 30여 개 국제기구 참여

- 약 200건의 협약·MOU·LOI 체결
-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금융조달 체계 구축 등 실행 중심 논의
- 국제공여국·국제금융기구·민간기업 간 후속 협력체계 강화

□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정

- Naftogaz는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과 최대 3억 달러 규모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산 에너지 장비·기술 도입 및 석유·가스 인프라 복구를 추진
- Notus Energy와는 65백만 유로 규모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120MW 육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DTEK과 GE Vernova는 9억 유로를 투자해 650MW 복합가스터빈(CCGT)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
- IFC(국제금융공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BSTDB(흑해무역개발은행), BII(영국국제투자공사), Swedfund는 191.2백만 유로 규모 공동금융을 통해 189MW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
- EBRD는 독일(45백만 유로)·노르웨이(10백만 유로)와 함께 RAMP-UP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1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15억 유로 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함
- Ukrenergо는 90백만 유로 차관과 독일 KfW의 11백만 유로 무상 지원을 확보하여 변전소 복구와 전력망 핵심설비 현대화를 추진하며, Ukrnafta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정부로부터 44.6백만 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추진
- Naftogaz와 Ukrnafta는 네덜란드 CQUESTRA BV와 853만 유로 규모의 탄소 포집·운송·저장(CCS) 사업 협력을 개시했으며, Energoatom은 체코 ŠKODA JS와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자력 인프라 현대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교통 및 인프라 분야 협정

- 우 공동체·영토개발부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과 '우크라이나 교통 지원 기금(UTSF)'의 운영 개시를 공동 선언하고, 도로·교량·항만·철도·국경검문소 및 공항 등 교통 인프라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함

우크라이나 교통 지원 기금(Ukraine Transport Support Fund, UTSF)

1. 추진 배경 및 목적

- 2026년 2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캐나다가 ITF(Common Interest Group for Ukraine, CIG4U) 협력 체계 아래 설립을 추진한 국제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URC 2026에서 공식 운영을 선언함
- 기존 재건사업이 개별 공여국 중심으로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 분야의 국제 재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복구하고, EU 교통 체계와 연계된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2. 운영 체계 및 특징

- 우크라 정부가 국가 재건계획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
- 리투아니아 중앙 프로젝트 관리기관(Centrinė projektų valdymo agentūra, CPVA)가 기금을 관리하여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 집행과 사업 관리를 담당함
- 단순 복구를 넘어 우크라 교통망을 EU TEN-T와 연결하는 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함

3. 주요 지원 분야

- 도로 및 교량 복구
- 철도·항만 인프라 복구
- 국경검문소(Border Crossing) 현대화
- 공항 인프라 복구
- 교통 분야 특수장비 구매
- 우크라이나-EU 물류회랑(Logistics Routes) 구축 및 강화

4. 재원 조성 및 참여국

- URC 2026에서 리투아니아(100만 유로), 스웨덴(100만 유로), 노르웨이(100만 유로), 에스토니아(10만 유로)가 초기 출연

-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개발부는 유럽투자은행(EIB)과 96백만 유로 규모의 금융 계약(Tranche B)을 체결하여 EU 연대 회랑(Solidarity Lanes) 이니셔티브 기반의 키이우 지역 교통 분기점 건설 및 키이우·리비우·리브네 지역 주요 국도 대규모 개보수를 추진함
- 우 공동체·영토개발부는 EIB와 우크라 교통 연결성(Ukraine Transport Connectivity) 사업을 위한 50백만 유로 규모의 무상 지원(Grant) 계약 체결
- 우크라 공동체·영토개발부,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투자은행(EIB)은 '안보 및 연결성 이니셔티브(Security and Connectivity Initiative)'

MOU를 체결하고, 서부 국경 검문소(Uzhhorod, Luzhanka, Porubne 등)의 처리 역량 확장과 진입 도로 현대화에 합의, 수개월 내 1차 60백만 유로 규모 금융지원 체결 예정

- 폴 수출신용보증공사(KUKE)는 우크라 수출신용보증공사(ECA Ukraine)와 MOU를 체결, 향후 KUKE의 우크라 기관 지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폴란드 기업들의 우크라 내 교통·물류 및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무역 보험 및 리스크 재보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우크라 공동체·영토개발부는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주택·물류·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민관 협력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함
- 우크라 국영 철도공사는 폴 국영철도(PKP PLK.)와 'Interreg NEXT 폴-우 2021-2027'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백만 유로 규모의 무상 지원 협정을 확보, 폴란드 베르크라타(Werchrata) 지역의 101번 노선 인프라 현대화와 리비우 기차역 내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시설 구축을 추진함
- 우크라 국영철도공사는 Swedfund International AB와 약 1백만 유로 규모의 무상 지원에 합의하여, 우크라 철도망의 EU 단일교통망 통합을 위한 핵심 시스템인 유럽열차제어시스템(ERTMS)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추진

□ 민간 투자 유치 및 금융 지원 분야 협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독일·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는 'European Flagship Fund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를 공식 출범하고 초기 자본금 220백만 유로를 조성함. 2026년 말까지 5억 유로 규모의 1차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1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에너지, 인프라, 물류,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최대 70억 유로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함

<유럽 플래그십 펀드>
(European Flagship Fund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1. 추진 배경 및 목적

- 2026년 URC 2026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독일·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 Team Europe 파트너가 공동 출범한 우크라이나 재건 전문 민간투자 플랫폼(Private Equity Fund)
- 전후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수요를 공공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으로 설계됨.
- 보조금(Grant)과 차관(Loan) 중심의 기존 지원방식을 보완하여, 우 민간기업과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통해 경제 회복과 EU 단일시장 통합을 지원이 목적

2. 운영 체계 및 특징

- Team Europe(EC, 회원국, 유럽개발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blended finance) 구조의 민간투자 펀드로 운영
- 민간 자산운용사 Amber Infrastructure와 Dragon Capital이 펀드 운용을 담당
- 공공재원을 마중물(anchor capital)로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레버리지하는 구조이며, 투자 대상은 우크라이나 내 민간기업 및 상업성이 있는 재건 프로젝트
- 유럽연합의 Ukraine Investment Framework(UIF) 및 기타 EU 재건금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민간투자를 촉진

3. 주요 투자 분야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 제조업 및 산업시설
- 건설자재 및 산업 공급망 등

4. 자원 조성 및 투자 규모

- URC 2026에서 초기 출자금 2억 2천만 유로(€220 million)를 조성하며 공식 출범
- 2026년 말까지 약 5억 유로 규모의 1차 펀드 결성(First Closing)을 목표로 추진
- 장기적으로 10억 유로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최대 70억 유로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Mobilisation)를 추진
- 참여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독일(KfW), 프랑스(Proparco), 이탈리아(CDP), 폴란드(BGK), 유럽투자은행(EIB) 등 Team Europe 파트너로 구성됨.망을 신속히 복구하고, EU 교통체계와 연계된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세계은행 산하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는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URIF)' 프로젝트 및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적·상업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무역보험 및 위험 보증 메커니즘을 도입함

- EBRD는 URC 2026에서 5억 유로 이상의 신규 금융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누적 투자액 105억 유로를 달성했으며,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UIF)로부터 1억 유로의 보증·무상지원 자금을 지원받아 레니(Reni) 및 이즈마일(Izmail) 다뉴브 항만 인프라 현대화 등 핵심 경제 분야의 회복력을 강화하기로 함
- 우 국영 은행 프리바뱅크(PrivatBank)는 EBRD로부터 825백만 유로 (1차 지원금 265백만 유로), 유럽투자기금(EIF)으로부터 357백만 유로 등 총 12억 유로 규모의 신규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민간 기업 및 복구 사업 금융 지원을 확대함
- 우 국영 은행 오샤드뱅크(Oschadbank)는 EBRD와 최대 510백만 유로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차 트랜치 150백만 유로를 통해 마이크로·중소기업(MSME)을 포함한 우크라 민간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함. 해당 프로그램에는 전쟁으로 인한 기업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EBRD의 Enterprise Security Enhancement(ESE) 기능이 포함됨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집행위원회(EC), 우크라 수출신용 보증공사(ECA Ukraine), 라이파이젠 은행 등은 5백만 유로 규모의 EU 기금 기반 '전쟁 위험 보증 그랜트(WRCG)' 시범 사업 이행 공동 선언을 발표하여 중소기업들의 민간 투자 자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합의함

□ 안보 및 국방 분야 협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URC 2026에서 총 60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국방 지원 계획(Defence Support Package)을 포함한 'Ukraine Support Loan'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 중 첫 번째 약 60억 유로 규모의 드론(UAV) 조달 지원 트랜치 집행을 개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 투자 프레임워크(UIF)를 통해 343백만 유로 규모의 보증 및 그랜트 협정을 체결하고, 안티 드론 (Anti-drone) 시스템, 무인 지상 차량(UGV), 항공, 첨단 내비게이션 및 통신 기술 등 민군겸용(Dual-use) 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는 URC 2026에서 '유럽-우크라이나 드론 동맹(EU-Ukraine Drone Alliance)' 가동을 구체화하고, 양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방산 무역보험을 연계하여 무인 솔루션 공동 생산, 합작법인(JV) 설립 및 서방 방산 공급망 통합을 가속화하기로 협의함
- 국제사회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 기반 조성을 위한 오염된 전장 영토의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Humanitary Demining)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우크라이의 실전 경험을 반영한 전국 단위의 민간 대피소(Civilian Shelters) 네트워크 고도화

<우크라이나 재건 그단스크 회의(URC 2026) 주요 프로그램 및 펀드 요약>

① EU 장기 지원 프로그램 및 드론 지원 패키지

- 총 900억 유로(2026~2027) 장기 지원 프로그램 추진, 1차 32억 유로 집행 완료

② 유럽 플래그십 펀드(European Flagship Fund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 초기 자본금 220백만 유로 조성, 2026년 내 5억 유로 1차 클로징 추진, 장기적으로 10억 유로 규모 조성(최대 70억 유로 민간투자 유치 목표)
- 공공재원을 마중물(Anchor Capital)로 활용하여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및 EU 경제통합 촉진
- 에너지·재생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데이터센터, 제조업, 건설자재 및 민간기업 지분 투자

③ 우크라이나 교통 지원 기금(UTSF, Ukraine Transport Support Fund)

- 초기 출연금 총 310만 유로(리투아니아·스웨덴·노르웨이 각 100만 유로, 에스토니아 10만 유로)
- 도로·교량·항만·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 인프라의 신속한 복구 및 EU 교통망(TEN-T) 연계 현대화 추진
- 국경검문소 현대화, 물류회랑 구축, 교통 특수장비 도입 및 교통망 회복력 강화

④ EIB 및 유럽집행위원회(EC) 교통·국경 인프라 지원 패키지

- EIB 금융계약 9,600만 유로, 교통 연결성 무상지원 5,000만 유로, 안보·연결성 이니셔티브 1차 60백만 유로(예정) 등 총 약 206백만 유로 규모
- EU 연대회랑(Solidarity Lanes) 기반 주요 국도 개보수, 키이우 교통 분기점 구축, 서부 국경 검문소(Uzhhorod·Luzhanka·Porubne) 처리 역량 확대 및 물류 연결성 강화

⑤ 주요 에너지·원전 복구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협정

- DTEK-GE Vernova 복합가스터빈(CCGT) 발전소 : 900백만 유로(650MW)
- 풍력발전 프로젝트 : 약 256백만 유로(120MW+189MW)
- Naftogaz-미국 EXIM 금융지원: 최대 300백만 달러
- Ukrenergo-Ukrnafta 지원 : 약 145백만 유로

⑥ 금융기관 연계 중소기업(MSME)·민간투자 및 위험보증 프로그램

- PrivatBank 12억 유로, Oschadbank 최대 510백만 유로, EBRD 신규 금융지원 5억 유로 이상, WRCG(전쟁 위험 보증 그랜트) 5백만 유로
- 전쟁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보험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및 재건사업 참여 촉진
- 정치·상업적 위험 보장, 무역보험 및 전쟁위험보험 확대, 민간 투자자 대상 리스크 완화 지원

⑦ 국방 및 이중용도(Dual-use) 기술 투자 패키지

- EU 보증·그랜트 343백만 유로(민간 투자 레버리지 포함 총 7억 유로 이상 유치 목표), 드론 지원 패키지 60억 유로 별도 추진
- 안티 드론 시스템, 무인 지상 차량(UGV), 첨단 통신·항법 기술 등 국방산업 육성 및 국가 회복력 강화
- EU-우크라이나 드론 동맹 추진, 무인체계 공동생산, 민군겸용 기술 개발,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및 민방위 인프라 고도화

⑧ 국제금융기구 공동 재건 지원 프로그램

- 세계은행 DPO 33억 9천만 달러,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약 5,880억 달러 전망
- 재건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투자환경 개선 및 Bankable Project 발굴 지원
- 세계은행(World Bank), EBRD, IFC, UNDP, EU 집행위원회 등

⑨ 민관협력(PPP) 및 투자유치 플랫폼

- 약 50억 달러 규모 PPP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제시, 회의 기간 중 약 200건의 협약·MOU·LOI 체결
-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 재건 모델로 전환하고 글로벌 기업·금융기관과의 투자 매칭 확대
- 주택, 물류,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전환, 방산 및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연계

※ URC 2026은 기존 재건회의와 달리 '안보·국방(Security & Defence)'을 제5의 핵심 의제로 신설하여, 재건과 안보를 통합한 새로운 우크라이나 재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됨